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성추문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로 인해 클린턴 대통령은 그동안 쌓았던 업적은 물론 자신의 인격에도 큰 손상을 입었다.

이같은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도 흔한 일이다. 불륜이 가정불화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부르는 경우도 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평생 쌓아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고 패가망신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불륜이다.

이런 문제는 비단 일반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성직자들 역시 가장 경계해야 할 악덕중의 하나다. 이와 관련한 부처님 말씀을 경전을 통해 들어보자. 〈편집자 주〉

이렇게 들었다

불륜 예쁜 여인 보면 참모습 관찰

▩여자가 스스로 제 몸을 지키지 못해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 가거나, 남자가 마음이 방탕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따르는 경우. 이렇게 가도(家道)를 다스리는 사람은 다 악도(惡道)에 떨어진다. 〈잡아함경〉

▩만일 사랑스럽고 어여쁜 여인을 보거든 참 모양을 관찰하고 부처님의 법을 바로 생각해 보라. 〈중아함 식지도경〉

▩서쪽을 예배하면서는 처에게 절을 한다고 생각하라. 남편은 처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처는 남편에 대해 존경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처에게 절하는 이유이다. 〈육방예경〉

▩남편은 다섯 가지 일로 그 아내를 존경하여 부양해야 한다. 다섯 가지란 바른 마음으로 존경하며, 아내의 뜻에 대해 원한을 품지 않으며, 딴 여인에 대한 애정을 지니지 말며, 때에 맞추어 의식을 주며, 띠로 보배의 장신구를 주는 일이다. 〈선생자경〉

▩아내는 남편을 섬김에 있어서 다섯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거든 일어나서 맞이함이요, 둘째는 남편이 외출해 집에 없거든 밥을 짓고 집을 치워서 기다림이요, 셋째는 남의 남편에게 음탕한 마음을 지니지 않음이요, 넷째는 남편의 가르침대로 행하여 집에 있는 가재구를 숨기지 않음이요, 다섯째는 남편이 잠들고 나서 눕는 일이다. 〈육방예경〉

▩남의 부인과 관계를 맺지 말고, 음행을 멀리 여의고, 자기 아내에게 만족을 아는 것, 그것이 곧 하늘에 나는 길이다. 〈십선경〉

▩자기 아내에게 족한 줄 알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마음을 어지럽히고 미치게 하는 술 마시기를 끊어버려야 하느니라. 〈중아함경〉

▩아내를 박대하고 남의 여자 욕뵈는 사람이 진실로 천박한 사람이다. 〈별역잡아함경〉

▩오직 음욕과 살생 그리고 도적질, 이 세 가지가 모든 악의 근본이 된다. 그러한 인연으로 업장과 과보가 서로 연속되나니라. 〈능엄경〉

▩예전에 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금·은이 많았다. 그녀는 다른 사내와 사귄 끝에 집안의 금·은·의복 따위를 훔쳐내 그 남자와 함께 도망쳤다. 급류가 흐르는 물가에 이르렀을 때 남자는 재물을 먼저 옮긴 다음에 부인을 옮겨주겠다고 했지만 재물을 가지고 건너간 남자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다.

그때 매를 잡으려던 여우가 잡았던 고기를 버리고 매에게 접근했으나 매는 날아가 버리고 결국 고기와 매를 다 놓치는 결과가 되었다. 여인이 여우에게 말했다. "넌 참 어리석구나. 둘을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잡다니…."

그러자 여우가 말했다. "내 어리석은 것은 그래도 낫다. 네 어리석음이야말로 나보다 더 심하지 않느냐." 〈구잡비유경〉

열린마당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립공원은 20개 구역으로, 총 면적은 6천4백73㎢(약 21억3천6백만평)이며, 그중 35%가 사유지, 8%가 사찰 소유지이며 나머지는 국-공유지이다. 재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환경부는 애초 잘못 지정된 구역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은 지역주민의 민원에 밀려 사실상 공원구역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차제에 국립공원 관리권의 강화 등 공원정책의 재정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편집자 주〉

◇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생태계 조사를 하고 있는 장면.

객관적 기준토대 구역조정 보존 해치지 않는 범위서 추진

김상훈 〈환경부 자연공원과 사무관〉

환경부의 국립공원구역 조정사업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소리가 높다. 국립공원은 철저히 보전위주로 관리되어야 마땅하지만, 애초부터 공원지정 자체가 불합리한 경우도 있어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한 지역을 공원에서 해제할 경우 유사한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요구를 해올 것이 뻔하며, 이러다 보면 공원구역 해제요구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구역조정사업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작년부터 시작된 공원구역 조정작업은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진에서 구역조정 기준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최근의 언론은 이 기준안의 내용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채 보도하여 많은 오해와 우려를 자아낸 바 있다.

기준안에 따르면 구역조정작업을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되, 1단계에서는 공원의 자원성과 문제지역의 조정타당성을 평가하여 양자의 요건을 공히 충족하는 지역을 구역조정 후보지역으로 선정한 후, 2단계에서 구역조정시의 생태·경관·수질 등 환경영향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구역조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에 구역조정 대상지역으로 보도된 지역들은 기준안에 따르면 조정타당성이 인정된 지역에 불과하므로 이들 지역이 실제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자원성 검토에서 일정수준 이하여야만 하고 아울러 구역조정시의 영향성 평가에 통과하여야만 비로소 구역조정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준안은 구역조정을 경계부에 한정하되 다만 해상공원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이 우려하는 만큼 무분별한 구역조정은 원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더구나 기준안은 원칙적으로 공원별 면적총량제 개념을 도입하여 공원면적의 감소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현재 마련된 기준안은 현장적용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쳐 보완되고 아울러 지역주민, 환경단체, 관련학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원계획 재정비사업은 공원의 보전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합리한 구역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해소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요청된다.

자연파괴·예산낭비 등 우려 '국가공원청' 신설 관리 강화

서재철 〈녹색연합 생태보전부장〉

국립공원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의 보고다. 어느 나라든지 자신들이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곳을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한다. 우리나라는 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0개의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중 16개가 산악형으로 지리산 설악산 등의 공원이다. 해안형의 국립공원은 3개로 태안반도 변산반도 한려수도 등이다. 사적형은 유일하게 경주국립공원이 있다.

현재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는 대행기관에서 하고 있고, 행정적인 지도와 통제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다.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관리권이 이양되었다. 이와 함께 내무부에서 무려 4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중이던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작업도 물려 받았다.

일부 국회의원이 중심이 된 정치권의 로비에 의해 추진된 공원구역 재조정작업은 국립공원의 기본이념을 도외시한 사업으로 많은 우려와 염려를 낳고 있다. 만약 재조정작업이 계속된다면 예산낭비와 더불어 환경파괴라는 이중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공원구역 재조정작업은 하루빨리 백지화되고 40억원의 예산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급히 요구되는 분야로 돌려져야 한다.

한국의 국립공원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국립공원보다도 더 낙후된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국립공원에 대한 이념과 정책의 부재에 기인한다.

현재 국립공원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국립공원 관리를 공단이라는 애매한 위탁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의 '국가공원청'을 신설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공원법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과 법에 대한 개정과 함께 중앙정부의 의지 표현으로 국립공원에 대한 예산과 관리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적어도 국립공원에 대한 예산과 인력은 삭감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국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국립공원으로 이해할 때 나타나는 발상이다.

자손만대로 영구히 보존해야 할 으뜸의 자원중 하나가 바로 자연자원의 보물창고인 국립공원이다. 기본이념이 부재한 국립공원 접근법이 너무 안타깝다.

국립공원 재조정 '찬반팽팽'

이미 시가지화 지역 해제 당위론

녹지훼손 행정 땅투기 조장 반대론

환경부는 21일 "전국 20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전면 재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11월까지 재조정 기준이 확정되면 곧바로 9개 권역별로 구체적인 재조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밝힌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대상지는 △국립공원 경계선 부근 지역중에서 시가지화한 지역 △공원지정 이전에 집단주거지가 형성된 지역 △도로개설 등으로 생태계가 단절된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니면서도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지역 등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우선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작업 실시 배경이 개운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작업이 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주장해온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립공원발전연구회의 주도로 시작됐기 때문에 공원구역이 대규모로 해제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립공원이 있는 지역 출신 의원들이 주로 모인 국립공원발전연구회가 중심이 돼 95년 자연공원법이 개정됐다. 국립공원에 대해 10년을 주기로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공원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원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축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립공원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국립공원내 용도변경 대상지역의 땅들이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사둔 땅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립공원을 지정한 본래 취지가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호·유지한다는 데 있는 만큼 선진국의 경우처럼 보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관리체계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경재교수(서울시립대·조경학)는 "일본은 환경청 내 자연보존국, 미국은 내무부 산하의 독립된 국립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를 맡고 있는 반면 우리는 환경부의 1개과(자연공원과)에서 관리업무를 지휘한다"고 지적했다. 李교수는 국립공원 관리개선방안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할 독립 외청 신설 △사법권을 가진 공원경찰제 도입 △인원장비의 대폭보강 등을 제시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권 선 문

호선사 사찰 건립불사

부처님은 온 누리에 가득하여 모든 중생에 널리 비추네 인연 따라 미치지 않는 곳 없지만 항상 보리좌를 떠나지 않네……

부처란 명과 상을 떠났으되 충만하지 않는곳이 없으며 시방과 삼세를 초월하였으되 그 광명이 법계에 창일하여 일초일목이라도 그 은혜에 젖지 않음이 없습니다.

재재처처가 불찰불신이오 삼라만상이 청정법신입니다……

어느곳 어디엔들 상적광토가 아닐 수 있겠읍니까마는 지혜가 암둔하고 업장이 후중한 우리 중생들로서는 동정을 같이 하는 부처를 부처로 볼줄 모르며 청정법신속에서 호흡을 같이하고 살면서도 청정법신의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웁기 그지 없고 답답하기 한량 없는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찰이 하나 초창되었다는 말은 부처의 화신이 하나 새롭게 나타났다는 말과 같은 것이며 짙은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도량이 또 한군데 건립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찰이란 대중이 공동으로 마음에 물어 있는 후중한 진구를 세척할 수 있는 선지이며 대도만행을 고루고루 수행하여 정각의 절정에 오를 수 있는 신성 장엄한 영장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에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41번지 유명산내력 대부산 줄기에 건립하고저 하는 호선사 대웅전 요사채 연수원 유치원 건립은 참으로 그 의의 자못 중대하기 이를데 없고 그 사명과 책임 진실로 언어도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리이타의 대원이 구현 성취되어야 할 것이며 일시성불의 대과가 이곳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누적의 죄업이 여기서 해소되어야 할 것이며 내성의 정진으로 증오의 불과를 여기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안목을 열 수 있는 명안 종사가 이 도량에서 쏟아져 나와 격외의 고준한 설법으로 미륜을 제도하는 부처님법회가 끊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며 강론 현담으로 항상 법륜상전의 계기가 마련되어 고해에 허덕이고 있는 중생을 상락아정의 언덕으로 인도할 수 있는 법열의 연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찰 건립의 기본 정신이며 수행납자의 본분 사명일 것입니다. 이러한 원대심현한 뜻으로 이곳에 사찰을 초창함에 있어 물심양면의 다대한 원호아래 오늘 청신남청신녀 불자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오며 사회 유지 여러분의 정성어린 후원을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원만히 건립불사가 이루어지길 본사 주지 덕산스님의 지대한원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41번지

호선사 주지 덕산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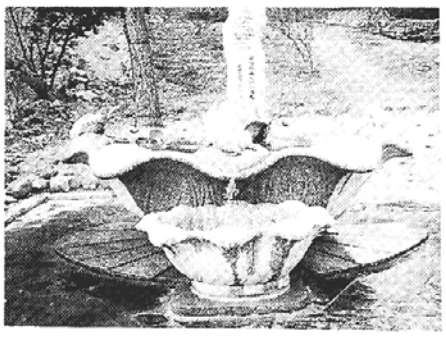
☎ 018) 359-3573, 0342) 743-9087

■ 온라인 번호 : 농협 711-02-017227 (예금주:이병훈)

석불, 천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도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기능올림픽 수상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벌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836-7527(FAX겸용) 자 택 : T)0653-831-3953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 표 김 옥 수 합장